

| | | | | | |
|-------|--|-----|--|-----|--|
| 수험 번호 | | 성 명 | | 감독관 | |
|-------|--|-----|--|-----|--|

2004학년도 정시 모집 논술 고사 문제지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400자 내외(± 80자)로 작성할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할 것.
3.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4. 시험 시간은 100분임.
5.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

【 문제 】

다음 예시문은 지식에 관한 두 관점을 제시하는 장자(莊子)의 천도편(天道篇) 가운데 한 구절이다. 이 글에서 편(扁)이 말하는 ‘찌꺼기’의 의미를 밝히고, 예시문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논술하시오.

제나라 환공(齊桓公)이 대청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일흔 살이 다 된 편(扁)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수레바퀴를 짊고 있었습니다. 편은 망치와 끌을 놓고 가까이 가서 환공에게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성현의 말씀이니라.”

“그 성현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다.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렇다면 왕께서 지금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시다.”

환공은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수레바퀴나 짊는 주제에 옛 성현의 말씀을 찌꺼기라고 하다니, 네가 무엇을 알기에 함부로 그따위 말을 하느냐. 만약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설명하지 못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에 대하여 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레를 짊는 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일에 비추어 그 말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수레바퀴 구멍을 짊을 때 망치질을 너무 느리게 하면 헐렁해서 살이 꼭 끼지 않고, 또 너무 재게 하면 뽕뽕해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고 재지도 않고 알맞게 짊는 이 기술은 손에 익고 마음에 응하는 것이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묘한 기술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자식도 그것을 제게서 배울 수가 없어서, 나이 일흔이 되도록 이렇게 수레바퀴를 짊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제가 죽으면 저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옛 성현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 깨달은 바를 전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성현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성현이 무덤으로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 그것을 글로 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은 성현의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莊子, 天道篇>